

친환경 정조준하는 기업들... ESG경영 미래방향 선보인다

CES 2023 관전포인트

SK회장 등 주요 그룹 수장 총출동
탄소없는 모빌리티 라이프 등 제시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3'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전시회에 참가하는 삼성전자, SK그룹, HD현대 등의 한국기업들은 올해 친환경 관련 기술과 제품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당 전시회의 주 분야 중 하나가 모빌리티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 등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지 않으면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지난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테슬라의 '베가스 루프'도 올해는 운영 하지 않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현지시간) 열리는 CES 2023에서 SK그룹, 삼성전자, LG전자, HD현대 등 한국 기업들은 친환경분야 기술 및 제품들에 초점을 맞춰 ESG경영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CES 2023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중희



SK(주)의 'CES 2023' 전시관 예상도

/SK

삼성전자 DX부문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그룹 수장들이 총 출동 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더욱 주목하고 있다.

◆ SK그룹, 최태원 회장 직접 나서 ESG 의지 각인

SK그룹은 8개의 계열사들과 CES 2023에 참가한다. SK는 'Together in

Action,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를 슬로건으로 잡고 미국 소재 10개 파트너사들과 전시관을 공동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모빌리티(Clean Mobility)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Zero Carbon Lifestyle) ▲폐기물 자원화(Waste to Resources) ▲에어

모빌리티(Air Mobility) ▲미래 에너지(Future Energy) ▲그린 디지털 솔루션(Green Digital Solution) 등 6개 구역을 나눠 약 40개의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SK온의 빠른 충전속도를 갖춘 SF배터리, SKC의 실리온 음극재 실물, SK(주)와 SK이노베이션이 공동 투자한 차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 기술, SK텔레콤의 사피온, 신재생에너지 가상 발전소, SKE&S의 수소 연료전지 '젠드라이브(GenDrive)'와 수소 충전기인 '젠퓨얼(GenFuel) 디스펜서' 실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K(주)는 인근 중앙 광장에서 지속가능식품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해당 트럭에서는 친환경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 LG전자, 삼성전자, HD현대 '맞춤 ESG'

LG전자, 삼성전자, HD현대도 각사만의 ESG 전략을 부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LG전자는 'Better Life for All'이

라는 ESG존을 운영한다. 이곳은 ▲지구구를 위한(For the Planet) ▲사람을 위한(For People) ▲우리의 약속(Our Commitment)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해당 존에서는 '지속가능한 사이클(Sustainable Cycle)'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CES 부스의 핵심 주제를 '친환경'을 꼽고 초저전력 반도체, 전력사용 절감 제품 개발 등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 특히 한중희 삼성전자 DX 부문장 부회장이 CES프레스 컨퍼런스에 대표 연사로 나서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HD현대는 바다에 초점을 맞췄다. 바다와 친환경을 연결한 것. ▲오션 모빌리티 ▲오션 와이즈 ▲오션 라이프 ▲오션 에너지 주제로 참여한다. 오션 모빌리티 전시관에서 친환경암모니아·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 기술을 공개하고 조선 해양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기자 vlna@metroseoul.co.kr

플렉스 하이브리드... 3세대 OLED TV 패널... OLED 혁신기술 총망라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삼성D-LGD, OLED 시장 양대산맥 미래 기술 현실화, 고객사 확보 중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미래 기술을 두고 자웅을 겨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3에 혁신 제품으로 가득 채운 부스를 마련했다.

양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기술을 현실화하고 고객사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파괴적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한 발 앞서 고객사 대상 전시회를 열었다. LG디스플레이는 처음으로 관람객들을 위한 부스를 마련, '올웨이즈 온'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마련했다.

◆ OLED 장인 대격돌

먼저 폼팩터 경쟁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중소형 OLED 강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뉴 디지털 콕핏.

이는 폴더블과 슬라이더를 기술 하나로 합쳐 '플렉스 하이브리드'를 선보인다. 왼쪽에는 폴더블, 오른쪽에는 슬라이더 기술을 적용해 10.5형 4대3 비율 화면을 12.4형 16대10 화면비로 바꿀 수 있다. 지난해 '2022 인텔 이노베이션'에서 깜짝 공개했던 17형 슬라이더 디스플레이도 정식으로 소개한다.

LG디스플레이도 토탈 터치 솔루션

으로 손가락과 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17인치 폴더블 노트북용 OLED와 함께 8인치 360도 폴더블 OLED도 함께 내놨다. 360도 폴더블 제품은 양방향 폴딩이 가능해 활용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동성을 높인 신개념 무버블 콘셉트 제품들도 첫선을 보인다. 27인치 OLED 패널에 이동형 스탠드를 결합한 'OL



LG디스플레이 게이밍용 45인치 울트라와이드 OLED 패널.

ED 글로우'와 CSO 기술을 적용한 48인치 OLED 패널에 바퀴 수납장을 결합한 '비트 트롤리' 등이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TV 시장 10년을 맞아 대형 OLED 시장 리더에 걸맞게 기술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3세대 OLED TV 패널을 처음 공개했다. 'META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화질을 혁신한 제품으로, 27인치부터 97인치까지

대형 OLED 패널을 마련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대형 OLED 패널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추격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QD-OLED를 업그레이드 한 것. 크기를 34형, 55형, 65형에서 77형으로 키우고, 49형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용도 함께 내놔 라인업을 대폭 넓혔다.

/김재용 기자 juk@

'세계 최초' 듀얼 UHD 해상도... DP 2.1 규격 지원

삼성전자, 새로운 모니터 제품군 공개

삼성전자 모니터 신제품이 대거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3에서 올해 출시할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표 제품은 4종이다. ▲세계 최초 듀얼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9' ▲OLED 패널을 탑재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OLED G9' ▲5K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

티 S9' ▲'스마트 모니터 M8' 등이다.

오디세이 네오 G9는 세계 최초 듀얼 UHD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다. 57형에 1000R 곡률 디자인으로, 듀얼 UHD 해상도 뿐 아니라 DP 2.1 규격 지원도 세계 최초다. 퀀텀 미니 LED를 광원으로 사용했으며, 240Hz 주사율에 퀀텀 매트릭스 기술과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매트 디스플레이 등 고사양 기술이 담겼다.

오디세이 OLED G9는 OLED 패널을 적용한 게이밍 모니터다. 49형 크기에 1800R 곡률, 32대9 비율로 듀얼 QHD 해상도를 지원한다.

/김재용 기자

독자 영상처리기술... 더 정밀해진 '빛 제어기술'

LG전자, '싱크 투 유, 오픈 투 올' 선언

LG전자가 올레드 TV 10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로 도약을 선언했다.

LG전자는 새로운 TV 사업 비전으로 '싱크 투 유, 오픈 투 올'을 정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비전은 제품 개발부터 구매, 사용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 경험'에 집중하고 개인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스크린 경험을 모두가 자유로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폼팩터 경험 ▲webOS 진화를 앞세운 맞춤형 고객 경험 ▲서로 다른 플

랫폼과 기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경험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지속되는 경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G전자는 CES2023에 새로운 LG 올레드 에보를 공개했다. 올해에도 LG 올레드 TV는 최고 혁신상 2개 등 12개 혁신상을 받으며 11년 연속 혁신상 대기록을 세웠으며, 새로운 제품으로 올레드 TV를 더 밝고 선명하게 만들어냈다.

새로운 LG 올레드 에보는 영상의 각 장면을 세분화해 밝기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독자 영상처리 기술'과 보다 정밀해진 '빛 제어기술'로 더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보여준다.

/김재용 기자